

김경수 도지사, 8월 10일 오후부터 출근해 도정챙겨

- 8월 10일(금) 오후 서울본부 출근, 영상회의 통해 스마트 공장의 개발·보급 확산, 폭염대책 등 현안 챙겨
- 김 지사, “스마트 공장의 확산을 통해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고, 스마트 공장에 들어가는 설비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지역 내 대기업 CEO 만나 협력사의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상생협력 방안 협의할 것”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8월 10일 오후 경상남도 서울본부에 출근해 도정 챙기기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1시 40분부터 문승욱 경제부지사와 관련 국·과장, 2시 30분부터는 한경호 행정부지사와 관련 실·국장이 참여한 영상회의를 잇달아 열고 도정 주요현안을 점검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먼저 스마트 공장의 개발과 보급 확산에 대해 언급했다. 김 지사는 “스마트 공장의 확산을 통해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고, 또 스마트 공장에 들어가는 설비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해 스마트 공장 확산이 관련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며 “스마트 공장 확산에 속도를 내고, 스마트 산단이라는 보다 큰 그림을 그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대기업의 협력도 필요하므로, 지역 내 대기업 CEO들을 만나 협력사의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상생협력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경상남도는 제조업의 메카인 경남에서 한국형·중소기업형 스마트 공장을 개발·보급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마중물이 될 R&D 자금과 정책금융 지원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 9일에는 방문규 경제혁신추진위원장, 문승욱 경제부지사(부위원장)와 위원들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놓은 현대위아와 신승정밀 등을 둘러본 바 있다.

또한 김 지사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심각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부분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일 자리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폭염대책을 청취하고, “폭염이 물러날 때까지 도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그리고 “폭염으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으니 추석제수용품 등 필수 농수산물 수급대책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다음 주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예산안을 마무리하게 된다”며 “마지막까지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공보관 임재영 주무관 (055-211-20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